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s

Jaewon Hong\*, Seungbae Park\*\*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rofessor, Dept. of Smart Business Management, Seoil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ole of defense expenditu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defense expenditures on the national economy. To this end, we collected data on defense spending, unemployment rate, GDP, and economic growth rate throug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fense spe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DP. Second, the influence of defense spending on employment rates varied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defense spending on employment rate had a greater impact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were bad than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were goo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perspective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defense spending and efficient defense spending by identifying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defense spending on the national economy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 **Key words:** Economic situation, Defense expenditure, Economic effect, Interaction effect, GDP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국방비의 역할을 살펴보고 국방비 지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국방비와 실업률,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방비 지출은 국민총생산과 고용률과는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비 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방비 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기여와 효율적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경제 상황, 국방비, 경제적 효과, 상호작용 효과, 국민총생산

- 
- First Author: Jaewon Hong, Corresponding Author: Seungbae Park
  - \*Jaewon Hong (jwhong@gnu.ac.k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Seungbae Park (sbpark@seoil.ac.kr), Dept. of Smart Business Management, Seoil University
  - Received: 2025. 01. 22, Revised: 2025. 02. 23, Accepted: 2025. 02. 25.
  - This paper is an extension of the paper("Economic Situation and the Economic Effects of Defense Spending") presented at the 71st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in 2025.

## I. Introduction

국방비는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즉, 국방비는 군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적 진보를 유도하여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키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의 역대 최대 수주기준 무기수출을 달성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2]. 하지만,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 부족이나 국가 부채의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3]. 이러한 이유로 국방비 지출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 측면에서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방 R&D 지출과 수출, 국방비 지출과 경제 성장, 국방 소비지출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기존 연구[4-6]들은 국방비와 국가 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경제성장률, GDP, 고용률, 수출입, 산업 성장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방비 지출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냉전 구조, 군사적 분쟁, 내전 및 동맹 여부 등이 있는데[7-8], 이 연구들은 지역적 갈등이나 긴장에 따른 국방비 지출로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은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GDP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국방비 지출은 무기 시스템 및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무기, 장비제조, 연구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면, 2021년 방위산업 매출 15조 9천억 원에서 13.8조 원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86.8% 증가하고, 직접적인 고용은 3만 3천 명에서 6만 9천 명으로 3만 6천 명이 증가된다고 예측하는 분석 결과도 있다[9]. 다만, 무리한 국방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국민 복지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정부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적 갈등이나 긴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비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특징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특정 국가의 경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경기순환, 정부의 정책, 글로벌 경제변화,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변화, 자연재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기가 순환 및 변동하게 된다. 경제활동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경기순환론(Cyclical Theory)에 의하면, 경제는 호황, 정점, 침체, 바닥의 4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국방비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방비와 국가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Kusi의 연구[10]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출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Effect

국방비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과 관련된 예산으로, 군사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병력 훈련, 무기 및 군사 장비 구매와 개발 등에 지출하게 된다. 국방비와 국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방비 지출이 군대 및 군수 산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산출 효과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5].

국방비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수 산업과 관련된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무기 제조, 연구개발, 군사 장비 유지 관리, 군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11-12]. 한편, 터키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11], 대만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리고 국방비 지출변화를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방비 지출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제 충격도 국방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 실업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특히 국방비의 일부는 민간 부문의 협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방위산업의 발전

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별 국방비 지출과 GDP 간에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국방 R&D 지출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국방 R&D 비중의 증가는 민간 군수업체로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무기 수출 및 총수요 증대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즉, 국방 분야는 첨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기술혁신이 나타나게 된다. 인터넷, GPS, 항공기 및 위성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첨단 군사 기술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민간 기술로 전이되어 민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AI,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신기술 등에서 군 관련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국방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방기술 R&D 체계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15].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 민간경제로의 경제적 자원 배분을 국방 분야에 흡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국방비의 증가는 사회복지, 교육, 건강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될 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비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16],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17], 자원풍요국에서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자원빈곤국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18]. 또한, 77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0]. 기존 연구들은 국방비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일반화될 수 없으며 개별국가의 특징이나 연구 시기의 상황에 따라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등 최소한 경제 성장의 장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19],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10].

가설 1: 국방비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Spending

특정 국가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재정정책의 종류, 정부지출의 구성(composition), 정부지출의 타이밍과 충격

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 정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994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고, 2005년 20조 원, 2011년 31조 원, 2017년 40조 원, 2020년 50조 원, 2025년 약 61조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2024년 대비 0.3% 증가한 61조 5천여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25년 정부예산이 총 지출 673.3조 원 규모인데, 그중 국방 예산은 약 9.1%를 차지한다[21].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투입된 국방 예산은 총 480조 원이다.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정부 재정의 약 13%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Defense Expenditure

Year	Defense Expenditure (Billion won)	GDP(%)	Government Finance (%)	Defense Expenditure Growth Rate (%)
2015	37,456	2.26	14.5	4.9
2016	38,800	2.23	14.5	3.6
2017	40,335	2.20	14.7	4.0
2018	43,158	2.27	14.3	7.0
2019	46,697	2.43	14.1	8.2
2020	50,153	2.58	14.1	7.4
2021	52,840	2.54	13.9	5.4
2022	54,611	2.53	13.0	3.4
2023	57,014	(2.56)	12.8	4.4
2024	59,424	(2.54)	13.2	4.2

Sour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이처럼 정부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22].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 선행성과는 달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출은 경기 후행적이고 경기순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방비 지출의 규모 및 변동이 실질 GDP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2].

경제가 호황일 때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므로 군사력 강화, 무기 및 군사 장비 현대화, 기술혁신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된다. 즉, 첨단 무기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 국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가 불황이거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경우(예: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다른 경제적 요구사항들이 우선 시 됨에 따라 국방 예산을 줄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국방부 누리집에 나타난 국방 예산 추이에 따르면 1975년 이후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수준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13%~15%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3]. 즉, 우리나라는 안보적 특수성에 따라 2021년 기준 세계 9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로서 국방비 지출이 낮은 국가와는 달리 경제 전반에서의 일정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인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GDP의 변동성보다 작으며 경기 선행적인 특징을 지닌다[24]. 그러나 국방비 지출과 GDP 간의 관계에서 국방비 지출은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한다. 즉, 국방비 지출은 경기순응적인 변수로서 경기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2]. 국방비 지출이 경기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부지출의 일부분인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경기 후행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가설 2: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III. Methodology

####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즉,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 성과로 대변되는 주요 경제적 지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특히,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에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 지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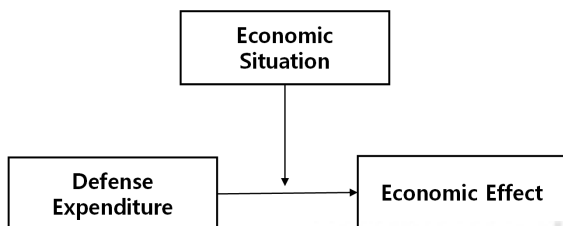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Data collection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 기간별 수집 가능한 경제자료를 탐색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산(시장가격, GDP) 및 경제성장률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국방비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국방비 예산 추이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년의 자료이며, 수집 단위는 연도별 데이터이다.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기간에 준하였다.

분석 방법은 SAS 9.4로 시계열 자료 기반의 회귀분석을 하였고, 경제 상황에 따른 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였다.

### IV. Results

#### 1. Descriptive analysis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도별 국방비 예산과 고용률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방비와 고용률은 우상향의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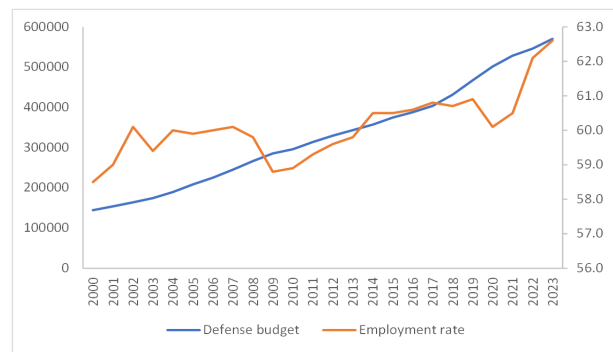


Fig. 2. Defense Budget and Employment Rate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국방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률과는 정(+)의 관계에 있었으며, 국민총생산과 고용률도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1.Defense expenditure	1		
2.GDP	0.988 ***	1	
3.Employment rate	0.784 ***	0.746 ***	1

\*\*\*p<.001

## 2. Economic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

본 연구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인 경제적 효과는 고용률로, 독립변수인 국방비는 국방비 예산액으로, 그리고 경제 상황은 경제성장률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때, 경제성장률은 데이터 시작 연도인 2000년은 '0'이라 제외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과 코로나19인 2020년 또한 예외 상황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는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ER_t = \alpha + \beta_1 DE_t + \beta_2 ES_t + \beta_3 DE_t \cdot ES_t + e_t \quad (1)$$

여기서,  $ER_t$  : 고용률

$DE_t$  : 국방비

$ES_t$  : 경제상황=경제성장률

분석 결과, 국방비는 고용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1 지지), 이들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Expenditure

Variable	B	$\beta$	t	p
Intercept	59.987	0.000	571.5***	0.000
Ⓐ DE	0.520	0.575	4.4***	0.000
Ⓑ ES	-0.248	-0.275	-2.1	0.055
Ⓐ×Ⓑ	-0.449	-0.488	-4.6***	0.000

\*\*\*p<.001, Adj R<sup>2</sup>=.798, F=27.3

DE: Defense expenditure, ES: Economic situation

이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통해 시각화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즉, 국방비가 고용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점선)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실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2 지지). 즉,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비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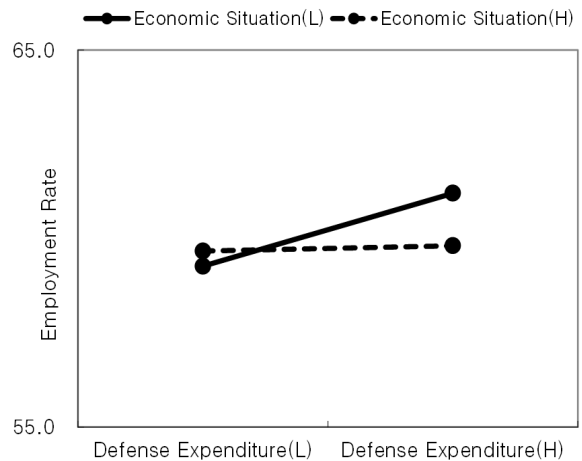


Fig. 3.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Expenditure

다음에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방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국방비의 단순 증가 효과를 배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국방비 효과를 금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으로 분석하였다.

$$ER_t = \alpha + \beta_1 WDE_t + \beta_2 ES_t + \beta_3 WDE_t \cdot ES_t + e_t \quad (2)$$

여기서,  $ER_t$  : 고용률

$WDE_t$  : 국방비 비중=국방비/GDP

$ES_t$  : 경제상황=경제성장률

Table 4.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Weighted Defense Expenditure

Variable	B	$\beta$	t	p
Intercept	59.990	0.000	548.1***	0.000
Ⓐ WDE	0.512	0.567	4.2***	0.001
Ⓑ ES	-0.258	-0.285	-2.0	0.057
Ⓐ×Ⓑ	-0.441	-0.506	-4.5***	0.000

\*\*\*p<.001, Adj R<sup>2</sup>=.772, F=23.5

WDE: Defense expenditure, ES: Economic situation

이 결과에서도 국방비는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Fig 4). 이는 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고용률을 진작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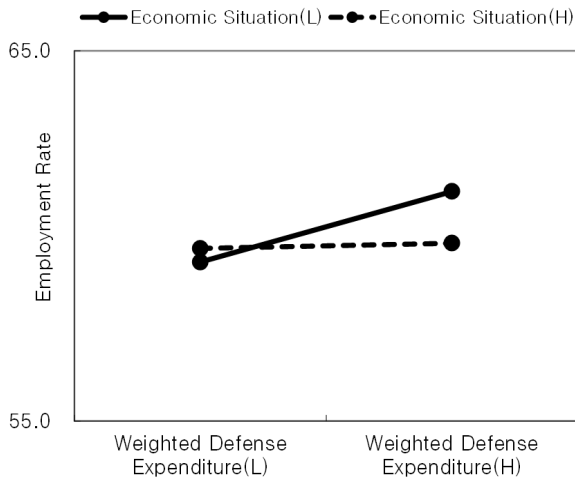


Fig. 4.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Weighted Defense Expenditure

###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과 국방비 지출 및 경제적 효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에 있어 경제성장률, GDP, 고용 등을 다층적 및 상호관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방비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고용률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기여와 효율적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방비 지출과 고용률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방비 지출은 GDP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의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방비는 고용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정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재정정책에서 국방비 지출은 경기 후행적이며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은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국방비 지출은 사회복지, 교육 등 다른 예산 항목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하며 국방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16], 국방 R&D 지출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4],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7].

결국,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을 고정하거나 늘리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군사비 지출을 고정하거나 최소한의 지출로 국가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방비와 경제적 효과의 관계를 경제 상황에 따라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경제자료 수집에 있어 데이터 제공처의 한계상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경제 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을 경제성장률 단일 지표로 정의하였는데 경제 상황은 경제성장률 외에도 물가 상승률, 투자 수준, 소비 심리 등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경제 지표를 사용하거나, 복합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비 지출과 경제적 효과의 관계 또한 고용률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확보를 통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Resurgence unde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2024.

### REFERENCES

[1] Lee Y., Seo M., and Kang H., "The Impact of Defense Expenditures on Growth and Export in Korea," *Korea Trade Review*, Vol. 37, No. 3, pp. 171-194, 2012. UCI: G704-000047.2012.37.3.011  
 [2] Paek J.,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defense exports and

- measures to strengthen defense export competitiveness,” *Strategic Studies*, Vol. 31, No. 1, pp. 33-63, 2024. DOI : 10.46226/jss.2024.3.31.1.33
- [3] Park, S., and Kwon, O.,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and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y Using PSEM,” *Kukje Kyungje Yongu*, Vol. 22, No. 4, pp. 33-57, 2016. DOI : 10.17298/kky.2016.22.4.002
- [4] Lee, Y., Kim, S., Chae, D., and Kang H.,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Defense Spending in the World,”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7, No. 1, pp. 273-296, 2013. UCI : G704-000735.2013.17.1.007
- [5] Kim, S., and Jeon, S.,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 Dynamic Panel Data Analysis -,”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25, No. 4, pp. 215-245, 2010. DOI : 10.22883/jdps.2010.25.4.007
- [6] Paek, J.,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Based on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1, No. 4, pp. 133-157, 2016. DOI : 10.22883/jdps.2016.31.4.005
- [7] Jang, H., “A Study on the Impact factor of making a Defense Budget,”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28, No. 3, pp. 33-43, 2021. DOI : 10.52798/KADIS.2021.28.3.3
- [8] Dunne, J. Paul, and Perlo-Freeman, Sam., “The Demand for Military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Dynamic Panel Analysis,”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4, No. 6, pp. 461-474, 2003. DOI: 10.1080/1024269032000085224
- [9] Shim S., “Economic effects and challenges of becoming one of the world's top 4 defense exporter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23.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103&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103&category=ST)
- [10] Kusi, N.K., “Economic Growth and Defense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1, pp. 152-159, 1994. DOI: 10.1177/0022002794038001009
- [11] Yildirim, J., and S. Sezgin, “Military Expenditure and Employment in Turkey,”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4, No. 2, pp. 129-139, 2003. DOI: 10.1080/10242690302919
- [12] Huang, J., and A. Kao, “Does Defense Spendings Matter to Employment in Taiwan,”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6, No. 2, pp. 101-115, 2005. DOI: 10.1080/10242690500070094
- [13] Shin Y., “A Study on Determination Factor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its Effect on Employment in Korea,”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22, No. 4, pp. 163-180, 2007. DOI : 10.22883/jdps.2007.22.4.006
- [14] Dunne, J., R. Smith, and D. Willenbockel, “Model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ACritical Review,”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16, No. 6, pp. 449-461, 2005. DOI: 10.1080/10242690500167791
- [15] Je 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fense Technology R&D System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Defense Innovation Ecosystem,”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9, pp. 295-303, 2023. DOI : 10.5762/KAIS.2023.24.9.295
- [16] Atesoglu, H. S. and M. J. Mueller, “Defenc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Defense and Peace Economics*, Vol. 2, No. 1, pp. 19-27, 1990. DOI: 10.1080/10430719008404675
- [17] Ward, M.D. and D.R. Davis, “Sizing Up the Peace Dividend: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1948-19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3, pp. 748-755, 1992. DOI: 10.2307/1964136
- [18] Fredericksen, P. C. and R. E. Looney, “Defense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9, No. 4, pp. 633-645, 1983. DOI: 10.1177/0095327X8300900406
- [19] Kim J., “A Causality Analysis of Korean Defense Expenditure and Economic Variables,”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ol. 30, No. 1, pp. 135-152, 2004. UCI : G704-001703.2004.30.1.003
- [20] Kwak B., “Interaction analysis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Kyeongje Yongu*, Vol. 31, No. 1, pp. 31-53, 2010. UCI : G704-SER000014779.2010.31.1.006
- [2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ttps://www.moef.go.kr/mi/opersite.do?menuNo=9110300>
- [22] Kim B., “Defense spending and the economic cycle,” *Proceed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Conference*, Vol. 1, pp. 1-17, 2006.
- [2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10000](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10000)
- [24] Chung U., and Kim Y., “Macroeconomics,” *yulgokbook*, 2005.

## Authors



Jaewon Hong received the BBA, MBA, and Ph.D. degre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in 1994, 1997 and 2007, respectively. Dr. Hong joined the professor of the School of

Business at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in 2008.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global marketing, internet and mobile marketing, information diffusion.



Seungbae Park received the B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1996, MBA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1998, and Ph.D. degre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in 2003. Dr. Park joined th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mart business Management at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2. He is interested in Brand marketing, internet and mobile marketing, Hallyu marketing.